

복권기금 성보박물관에 '숨통'

월정사·수덕사 등 특별전 ... 도록편찬·전산화 작업도

'로또기금' 36억 사립박물관 지원 ... "지속 필요"

월정사성보박물관의 '유물로 보는 오대산 문신상' 전(10월 8일~12월 5일)을 시작으로 수덕사근역성보박물관의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 전(11월 12일~12월 12일), 직지사성보박물관의 '경북의 금석문' 전(12월 1일~26일) 등 성보박물관의 특별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특별전 공통점은 올해 처음 조성된 로또 복권 기금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물 수집 관리 및 일반인 교육 등 공공적인 성격이 띠고 있음에도 운영 부담을 사찰에만 전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보박물관에 대한 정부의 첫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 분야 제한 등 경직된 규정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성보박물관에 대한 지원은 성보박물관이 속해 있는 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중규·이하 협회)의 '2004년도 사립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여기에 책정된 기금 규모

는 약 36억원. 협회는 △특별기획전시 △상설기획전시 보강(전시설명문 보강 따위) △사이버전시 △사회교육프로그램 지원 △도록발간 △수장고 보강(유물 정리 및 소독 따위) 등 6개 대상사업 분야를 정하고 지난 8월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총 90여개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해 175건의 사업 지원을 결정했다.

월정사성보박물관, 수덕사근역성보박물관, 직지사성보박물관, 대원사티벳박물관, 명주사고관화박물관 등은 특별전 분야로, 선암사성보박물관 등은 사이버전시 분야로 지원을 받았다. 또 송광사성보박물관의 '전시유물도록 제작',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유물 전산화 및 소독' 등도 지원됐다. 특별전 지원 경우 전시 규모에 따라 2천만 원에서 4천만원 범위에서 차등 책정됐다. 이 같은 복권기금 활용에 대해 불교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원을 받아 11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의 일정으로 '나무-붓, 칼, 종이의 만남-한국고관화의 세

계'를 개최할 예정인 치악산 명주사고관화박물관장 선화 스님은 '사립박물관은 재정 문제로 특별전을 갖지 못하고 상설전시만 하는 곳이 허다하다'며 '이번 지원으로 박물관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권기금이 성보박물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첫째 현황과 같이 일회성 사업에 국한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급변 지원 사업에서는 6개 분야에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지원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원 사례를 보면, 특별전을 치르는 데 필요한 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중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지원 금액이 모든 소요경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교문화가 확산되는 촉매제로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복권기금을 유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복제품) 앞에 모셔진 복장사리를 견경하고 있는 관람객들. 월정사 성보박물관 특별전은 12월 5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제공-월정사 성보박물관

한편 이번 지원을 계기로 사립박물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심주만 주임은 "복권기금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54>



소리는 보고 모습은 듣는다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해오면서 여러 감각 중에 특히 시각(視覺)과 청각(聽覺)을 발달시켜 지각 범위를 넓혀왔고, 이에 수반되는 넓은 운동범위를 가지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진화를 통한 신체 변화뿐만 아니라 인식능력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간만 보더라도 무선 통신을 개발하고 현미경이나 망원경 등을 만들어 지각능력의 한계를 넓힘으로써 지금의 문명을 이루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대상을 지각하여 인식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거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각되는 그 대상이 이미 예전부터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경험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어 서로 비교하고 맞추어 봄으로써 지금 본 것

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기에 지금의 인류문명을 만들어 냈다. 우리는 말을 들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뜻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게 된다. 이것은 시각처럼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러한 의미의 공유가 생물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사립이나 동물은 자신들이 만든 의미 체계 속에 갇히게 된다. 선사들의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들

말 듣는 순간 머리 속에는 말뜻 정리 스스로 만든 의미체계에 갇히는 것

의 모양을 이해하고 납득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납득한다는 것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과 같다.

이처럼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은 대상을 보는 순간 우리 뇌 속에서는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기억(豫)으로 정리하고 변형시키는 것(attention preference)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상에 대한 지식 세제란 결국 자신의 기억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작은 세계를 자신의 틀로서 계속 강화해 가는 것(self-organization)에 불과하다. 이것은 모든 생물의 감각기관이 가진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시각과 더불어 대표적인 감각 중의 하나인 청각에 의존하는 언어는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 수단이다. 인간

보면 그 계기가 다양하다. 활이나 방이외에도 촛불을 끄거나 시냇물에 팔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등의 시각적 상황도 있고, 닭 울음소리, 기왓장 부딪히는 소리처럼 청각에 의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의미 지닌 형태와 소리로서 받아들였다면 그냥 '어, 어두워졌네' 아니면 '닭이 우는구나' 했을 것이지만 상(相)이 더 이상의 길들여진 상이 아니게 되어 무르익은 상태에서는 전혀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순수한 그 한자리에서 보고 듣게 되어 일을 마치게 된다.

관세음보살님도 소리를 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무릇 불자라면 눈에 보고 듣는 것에 현혹되어 울고 웃지 말고 세상 모습과 소리의 본래면목을 보아 자신의 본면목을 찾으려 해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 문병성

"유식학 자아이론, 동기유발 통합이론 바탕 가능"

송운석 교수 '불교의 제8식...' 통해 주장

어떻게 하면 조직원의 동기를 유발시켜 생산성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을까? 조직 관리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밖에 없는 고민이다. 이와 관련된 발전해는 것이 동기유발이론, 인간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경영학, 행정학 분야의 주요 영역이다. 이처럼 불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동기유발이론을 유식학의 자아이론에 기초해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가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운석 단국대 교수(행정학·사진)는 11월 13일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종표)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불교의 8식설을 통한 동기유발 통합이론 개발 가능성'을 통해 "기존 동기유발이론들은 동기유발의 일부만을 잘 설명하지만,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는 설명하지 못해 많은 이들이 통

합이론 개발을 시도했으나 이론의 토대가 되는 서구적 자아 개념의 한계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다"며 "유식학의 자아이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8식설로 대표되는 유식학의 자아이론이 "인간 의식작용 및 행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므로 리더십 보강체계, 개인의 생애적 특성, 이의 추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나는 역동적인 동기유발과정 설명에 적합할 뿐 아니라 서구적 자아 개념들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견지에서 송 교수는 8식설에 기초한 동기유발통합모형을 구성,

새로운 동기유발통합이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제8식은 경험과 생애적 특성을 토대로 형성되는 개인의 욕구 체계가 되고, 제7식은 제8식에서 생겨나는 충동을 자신의 생존과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며, 제6식은 제5식을 통해 받아들인 외부 자극들을 제7·8식의 작용들과 통합해서 개념화하고 행동으로 전파시킨다. 또 그 결과는 제8식에 축적돼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이며 복합적인 구조를 이룬다.

송 교수는 8식설에 기초한 자아개념을 적용한 이 같은 모형이 "동기유발과정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고 시간성을 토대로 한 순환적 변화과정으로 보는 데 도움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인간 행위를 설명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이론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익순 기자



인도철학회 11월 26일 보조사상연구원 27일 추계학술대회 개최

인도철학회(회장 김선근)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의 학술발표회가 11월 26일과 27일 각각 열린다.

'간화선 수용과 한국 간화선의 정체성'을 주제로 법산사 3층에서 열리는 보조사상연구원 16차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의 '간화선 수용과 한국 간화선의 특징', 인경 스님(명상상담연구원 원장)의 '간화선과 둔집문제', 성본 스님(동국대 교수)의 '수선사의 간화선 사상'이 발표된다. (02)733-5311 www.bojosasang.org

'티베트, 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동국대 다량관에서 개최되는 19회 인도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로상중(스님(김상사)의 '어떻게 티베트불교가 확산될 수 있었는가', 안성두 박사(금강대 전임연구원)의 '티베트불교에서 마음의 문제', 김한규 서강대 강사(사학과)의 '불교과 제국,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통해본 티베트 역사 공동체의 정체성'이 발표된다. (02)2260-3130 www.ksp.org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氣와 사랑의 약손 교습 안내

- 서울시 사라지거는 전통문화 대상선정!

기공·호흡·운동요법·물리요법·자극요법·자세동작교정요법·정신심리요법·명상요법 그리고 기치유와 경락경혈요법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별적인 특징에 맞추어 관리하여 드리며 약손요법을 배워 주변에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개별 전수를 해 드립니다.

기와 사랑의 약손 042-472-1881

전통양생법을 통한 건강 지키기

중국무술내가권(태극권, 형의권, 팔괘장)연구소

- ▷ 중국전통기공법·중국무술내가권 체력단련, 자세교정, 집중력강화, 자기조절, 각종 성인병 및 난치병 예방
- ▷ 벽국법(전통도가식 단식)
 - 체질개선, 내장기능 증가 (필히 공력이 높은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별 특성, 목적에 맞는 공법지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9 메트로존 604호 (시청 맞은편) 상담전화 : 042-471-1882

제2회 침구교육사 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 교육목적 및 과정 ◆

평소 침구학에 관심이 많은 의료계종사자 및 재야 침구인들은 그동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간 제도운영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교육원을 개설할 수조차 없는 실정을 감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유능한 교육생을 배출함은 물론 침구교육사 양성제도를 확충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침구교육사 과정

모집분야	모집인원	지원 자격	수업시간
6개월과정 (2학기)	50명	자격기본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1.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침구분야 종사자 2. 해당분야 국내의 사회교육원 및 교육학원에서 2년이상 교육이수자 3. 기타 위사항에 준하는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야 침구인	매주 1회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6시
1년과정 (4학기)	50명	상기와 같이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1.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일반인 및 건강분야에 자격이 있는자 2. 기타 건강관리에 관심있는 일반성인 3. 대체의학분야 종사자	

2. 교육과정

- 한(중)의학기초이론, 해부생리학, 침술내과학, 외과학, 위생법, 경혈학, 한방진단학, 침구처방학
- 대체의학관련과목 다수 • 사상의학(체질의학),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

3. 접수문의 • 02)393-5111(대) 서울 서대문 본교육원 교무처

4. 신청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사진(3×4) 5매 • 이력서 • 각종자격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 특 전 : 교육이수후 자격검정 합격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할 수 있음
 - 국내최초로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로 교육을 실시하오니 재야 침술에 전문인은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을 졸업후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한의학)과에 편입학 가능 • 본 과정을 졸업한후 외국대학(대체의학 및 한의학)편입학 가능
 - 본 과정을 이수후후 개원설립시는 특별혜택 부여

※ 오후는 교통편 *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1번출구 나와 10미터 조흥빌딩 5층 * 버스 - 137번, 서대문 로터리 하차 총정로우체국 옆

문교부허가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조흥은행 5층 한국침구교육원 TEL. 02)393-5111(대) FAX .02)312-5404